

조현명 시에 나타난 ‘탕평’ 관련 의식 연구

이 남 면*

<目次>

I. 서론	IV. ‘탕평’ 의식의 확대 양상
II. ‘탕평’ 의식 및 추진의 배경	- ‘균형’, ‘공존’ 의식과 그 양상
III. ‘탕평’ 의식과 정치적 고뇌	V. 결론

<국문 초록>

본고는 영조대 정치가이자 문인인 趙顯命(1691~1752)의 탕평 의식 및 추진의 배경과 아울러 ‘탕평’ 관련 의식의 시적 형상화 양상을 살핀 것이다. 조현명은 영조대에 이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까지 오르며 당시 탕평책을 추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조현명의 집안은 老少가 분기된 시점부터 소론에 가담했으나 노론 집안과 연혼 및 사우 관계를 형성하였다. 조현명은 특히 김창협·김창흡 계열의 노론 문사들과 깊이 교류하였고 또 노론 洛論系에서 주장했던 ‘人物性同論’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면모는 노론 인사들(특히 낙론계 문사들)과의 사상적 유대감을 형성해줌으로써 그가 노소간 대립을 극복하고 균형을 맞추는 ‘탕평’의 적임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로 추정된다. 또한 그가 人性과 物性を 차별하지 않은 것이나 홍세태, 정대교 등 여향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 것, 왕양명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 등도 대립과 차별을 극복하고 공존하려는 그의 의식과 일정 부분 관련성을 지닌다.

조현명의 ‘탕평’ 관련 시는 정치적 측면과 정치 외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 부산대학교 전임연구원 / lnm96@hanmail.net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조현명은 정계 진출 초기부터 ‘탕평’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분명히 지녔고, 이조판서 임명이 무산된 때에는 탕평을 추진하지 못하는 처지와 고충을 토로했으며, 탕평 추진 과정에서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탕평 추진을 위해 용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조현명은 정치적 측면 외에 사람, 사물, 사상 등을 대하는 여러 상황에서도 ‘공평’, ‘평등’, ‘공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벗과의 사소한 말다툼에서도 우열 논쟁을 버리고 서로를 인정하자고 제안하였고, 불교의 ‘평등’ 사상에 호감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종류가 다른 국화꽃이 서로 공존하는 모습을 예찬하는가 하면, 文人과 武人 둘 사이의 우위를 논할 수 없다는 견해를 펼치고, 지역의 송사 문제에서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그의 ‘균형’, ‘공존’ 의식은 정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조현명의 의식은 차별과 대립, 분쟁을 거부하고 화합과 상생을 추구하고자 했던 18세기 전반 소론계 지식인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주제어】 조현명, 탕평, 균형, 공존, 평등, 노론, 낙론계, 老少, 소론

I. 서론

본고는 조선후기 영조대 정치가이자 문인인 趙顯命(1691~1752)의 한 시에 나타난 ‘탕평’ 관련 의식을 살피는 것에 목적이 있다. 조현명의 본관은 豐壤, 자는 稚晦¹⁾, 호는 歸鹿·鹿翁이다. 조현명은 18세기 초반 노소의 대립이 극심하던 때에 관료 사회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그는 1719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내외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이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까지 오르며 영조대 탕평책 추진의 핵심 인물로 활약하였다. 그는 서인 정권이 老少로 분기될 시점부터 형 趙文命(1680~1732)과

1) 조현명의 문집 속에 수록된 聯句詩에는 그의 이름으로 ‘時晦’라는 표기가 여러 번 보인다.

함께 朴世采(1631~1695)의 「破朋黨說」을 수용하여 분쟁과 대립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청요직의 혁파와 균역법 추진을 통해 탕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²⁾

이처럼 정치적 위상이 높았던 만큼 조현명의 정치적 활약상은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주목을 받아왔다.³⁾ 그러나 조현명은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문인이었다. 李奎象(1727~1799)은 『并世才彥錄』에서 그의 편지글이 굳세고 호탕하여 김석주 이후 최고이며, 그의 시문은 모두 豪氣가 있고 소탈하다고 논평하였다.⁴⁾ 특히 그는 宋成明(1674~1740), 李壽沆(1685~?), 崔株岳(1651~1735), 趙裕壽(1663~1741)와 함께 詩社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또 梅會, 重甲稷, 不忘稷 등 다양한 모임을 형성하여 그 회원들과 함께 자주 聯句詩를 짓고 차운시를 남겼다. 그가 시로 교유했던 인물들 중에는 당시 시인으로 명성이 높았던 李秉淵(1671~1751), 洪世泰(1653~1725), 鄭來僑(1681~1757)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많은 시를 창작하였고 현재 그의 문집 『歸鹿集』에는 1,141제 1,720여수의 작품이 생애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현명이 18세기 전반기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에 주목한 연구는 이경수 교수가 최근 제출한 논문 1편에 불과하다. 이경수 교수는 조현명이 1736년과 1746년 두

2) 박광용, 『영조 시대를 만든 사람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p.45-55.

3) 정만조, 「귀록 조현명 연구 - 그의 탕평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김형자, 「朝鮮後期 趙顯命의 政治·經濟思想」,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김대식, 「歸鹿 趙顯命의 訓長制 시행과 그 변용」, 『한국교육사학』 29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7; 이근호, 「趙顯命의 現實認識과 國政運營論」, 『한국사상사학』 32, 한국사상사학회, 2009.

4) 이규상, 『并世才彥錄』, 「文苑錄」, “札翰, 遒勁豪宕, 金清城後一人也.”, “相國詩文, 俱有豪氣而疎.” 이규상 지음,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18세기 조선 인물지 并世才彥錄』, 창작과비평사, 1997, p.267.

5) 조현명, 『歸鹿集』 권2, 「次后澗叔父寄示韻, 自注, “溪西崔丈已上仙, 松石宋尙書按北節, 李台叔謙奉使燕京, 余西出, 皆社中人也.”

차례에 걸쳐 춘천을 방문했던 사실에 주목하고서 당시 조현명이 남긴 시 작품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논하였다.⁶⁾

조현명의 시는 작품수가 많은 만큼 시세계 또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의 기행시는 관찰사로서 영·호남을 유람하고 또 강원도와 평안도 및 중국 연경을 다녀온 여정이 나타나 있고, 영물시는 주로 매화, 국화, 연꽃 등을 즐긴 아취를 보여주며, 演雅體를 비롯한 다양한 戲作에는 그의 해학적 면모가, 술회시에는 그의 진지한 고뇌와 성찰이, 벗과 함께 지은 聯句詩에는 그의 詩才가 잘 나타난다.

조현명의 시는 이처럼 다양한 면모를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조현명 시에 나타난 내면의식 중에서 ‘탕평’, ‘균형’, ‘공존’ 등으로 대표되는 ‘탕평’ 관련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현명 시의 분량이 많아 그 다양한 양상을 다루기에는 현재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조현명이 탕평책을 추진한 핵심 인물인 만큼 그의 핵심적 세계관을 살피는 일이 그의 시 연구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먼저 조현명의 ‘탕평’ 의식 및 그 추진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후 탕평의 세계관을 정치적 측면과 정치 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탕평을 추진한 인물의 의식지향과 고뇌, 그리고 그 의식의 확장 양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II. ‘탕평’ 의식 및 추진의 배경

‘탕평’은 『書經』 「洪範」편 다섯 번째인 「皇極」의 “치우침 없고 무리 짓지 않아 왕도가 탕탕하고, 무리 짓지 않고 치우침 없어 왕도가 평평하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에서 유래한 말로, 어디에

6) 이경수, 「조현명 한시의 춘천 표현」, 『인문과학연구』 52, 인문과학연구소, 2017.

도 치우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공평하고 균형적인 의식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서로 간의 대립과 차별, 분열을 극복하고 공존하는 것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조현명은 평생에 걸쳐 ‘탕평’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그가 朴世采의 문집을 읽고서 탕평론을 수용했던 이유는 대립과 분쟁이 극심한 당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탕평’보다 더 좋은 계책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조현명의 ‘탕평’ 의식 형성과 추진 배경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 정만조 교수가 조현명의 가계와 사우 관계를 통해 일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그 세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조현명의 從祖父로서 우의정을 지낸 趙相愚가 老少 분기 당시 少論의 선봉격으로 활약한 뒤로 조현명의 숙부 趙大壽와 종숙 趙裕壽, 그리고 형제, 종형제 등이 모두 소론으로 활약한 것이고⁷⁾, 둘째는 조현명의 부친 趙仁壽가 「파봉당설」을 주창했던 박세채의 문인으로서 그 학통의 연원이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조현명의 이모부가 老論四大臣 중 한 명인 李健命이고 숙형 조문명이 당시 노론의 영수였던 金昌集의 동생인 金昌業의 사위가 되는 등 노론 집안과 連婚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계 및 사우, 연혼 관계로 인해 조문명과 조현명은 소론의 색채를 분명히 지니면서도 여느 소론과는 다른 정치적 색채를 지닐 수 있었으며, ‘탕평’의 정치관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⁸⁾

이러한 사실은 조현명의 ‘탕평’ 의식과 추진 배경의 중요한 내용이다. 실제로 조현명은 훗날 형 조문명과 함께 소론 緩論에 참여하여 同黨의 핵심 인물인 徐命均, 宋寅明, 鄭羽良 등과 정치적 노선을 함께 하였고, 峻論에 속하는 李宗誠, 朴文秀, 尹淳 등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단, 그가

7) 조대수는 숙종조 소론의 중심인물이었던 徐文重(1634~1709)의 사위이기도 하다.

8) 정만조, 「귀록 조현명 연구 - 그의 탕평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p.126.

소론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면서 ‘탕평’ 정책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노론계와의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조현명이 노론계와 연결되는 지점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고자 한다.

조현명이 노론계 문사들과 연결되는 지점으로 김창협·김창흡 계열과의 관련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조현명이 김창협·김창흡과 직접 만났거나 사우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집안 간 연계나 農淵 계열 문사들과의 교류, 농연 문집에 수록된 시를 차운한 작품을 남긴 것 등을 통해 그 관련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우선 조현명의 형 조문명은 김창업의 딸과 혼인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창협의 문하생이 되었다. 조현명의 백형 趙景命도 박세채, 김창협과 문답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조경명 역시 김창협과 사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창흡의 경우, 조현명은 『三淵集』에 수록된 시의 운을 따서 짓는다는 제목의 시를 그의 문집에 11수 남기고 있다. 김창흡은 佛書를 탐독하고 양명학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으며 人物性同論을 주장하는 洛論系の 종장격이 된 인물이다.¹⁰⁾ 조현명이 김창흡의 어떤 사상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인정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삼연집』을 읽은 것은 분명한 만큼 삼연의 사상과 학문, 문학적 성취에 대해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던 것은 분명하다. 조현명은 김창흡의 문하생인 槎川 李秉淵과도 교류를 하였다. 이병연은 시의 거장으로서 ‘三淵 이후 사친 1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¹¹⁾ 조현명의 백형 조경명과 중형 趙永命이 이병연과 교류한 바 있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 조현명은 어릴 때부터 이

9) 조현명, 『歸鹿集』 권18, 「遺事玄江三淵問答跋」, “伯氏大諫公, 嘗記先人遺事及與玄石朴先生, 農岩金丈問答者, 授余.”

10) 최유진, 「삼연 김창흡의 철학적 시세계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11) 이규상, 『并世才彥錄』, 「文苑錄」, “我朝大匠蘇齋芝川湖陰簡易三淵如干家, 而三淵後槎川一人” 이규상 지음,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18세기 조선 인물지 并世才彥錄』, 창작과비평사, 1997, p.257 참조.

병연을 알게 되었고¹²⁾ 훗날 시를 지어 이병연에게 주곤 했다. 이병연은 제상과 수창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으나 조현명은 이병연의 제자가 되고 싶은 뜻을 전하기도 한다.¹³⁾

김창협·김창흡은 天機 관념을 바탕으로 여향인들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이들이 특히 돈독하게 교류했던 인물로 洪世泰가 있는데, 김창협·김창흡은 홍세태의 시적 재능을 인정하여 망형지교를 맺었고 이로 인해 홍세태는 김창협·김창흡이 결성한 詩社에도 참여하였다.¹⁴⁾ 조현명은 홍세태와 어린 시절에 만난 적이 있으며 홍세태 사후에 그의 「墓表」를 짓는다.¹⁵⁾ 또한 홍세태의 문집에 수록된 시에 차운하여 여러 편의 시를 짓기도 하였다. 조현명은 홍세태의 제자 鄭來僑·鄭敏僑 형제와도 친분이 두터웠다. 정내교와는 만년까지 교류했으며 역시 여향인의 한 명인 洪禹弼과 함께 자주 만나 차운시를 짓거나 聯句를 짓는 등 함께 문학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정내교는 조현명이 경상감사로 있던 1730~1731년에 자주 만나 홍세태의 『柳下集』에 수록된 시의 운을 가지고 시를 짓는 등 교유가 깊었다. 조현명은 정내교가 1731년 사망했을 때 묘지명을 지었는데, 정내교가 홍세태의 여향시인으로서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정내교가 홍세태의 문인임을 밝히고 있다.¹⁶⁾

12) 조현명, 『歸鹿集』 권2, 「次嶽下李一源秉淵晬辰韻生辛亥云, “公昔遊吾伯仲間, 童時常喜慣看顏.”

13) 조현명, 『歸鹿集』 권3, 「復和槎川槎川嫌與宰相酬唱有云云, “墜履君當呼孺子, 執脩吾欲作諸生.”

14) 조성산, 『조선 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7, p.252.

15) 조현명, 『歸鹿集』 권14, 「洪世泰墓表, “余少時猶能及見, 翁風姿蕭散, 不似塵中人也.” 조현명이 어린 시절 홍세태와 만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어릴 적 스승이 姜就周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취주는 여향인으로, 홍세태와 함께 洛社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강취주는 조현명의 季祖인 조상우와도 친분이 있었으며 조상우의 손자이자 조현명의 재종인 趙龜命이 강취주의 傳을 짓는다. 조현명, 『歸鹿集』 권18, 「鷺洲集序」, “… 君名就周, 余之塾師也. 余自幼習知其本末, 君閭巷人也 … 季祖東岡公素善君, 以君拳足如鷺, 戲號爲鷺洲. 君喜曰, ‘是善志我, 仍以自號. 吾弟錫汝爲君立傳以贊之曰, …’”

이와 같이 조현명이 김창협·김창흡 계열의 문사들과 교유를 맺고 있는 가운데 그가 당시 노론계의 人物性同異 논쟁에서 낙론계가 주장한 人物性同論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을 보자.

다만 보내주신 글 중의 ‘사람은 사람의 理가 있고 사물은 사물의 理가 있어 절연하여 어지럽힐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곧 사물의 理이다’는 설을 공파한 이유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화생함에 氣로써 형체를 이루고 理 또한 부여한다.’라고 하였으니, 무릇 ‘아’라는 것은 하나일 뿐인데 어찌 사람과 사물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물이 구분되는 까닭은 氣가 고르지 못해서이지 理가 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자사는 “하늘이 명한 것을 ‘性’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하늘이 명한 성은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맹자는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셨으니, 만물의 이치는 모두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돈이는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다.’라고 하셨으니, 사람과 사물은 두 개의 태극이 있지 않습니다. 주자는 ‘사람과 사물은 각자 품부 받은 理를 얻음으로 인하여 건순·오상의 덕을 삼는다.’라고 하였으니, 오상의 덕은 사물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아’와 사물의 ‘이’가 절연하여 어지럽힐 수 없다는 말을 자사·맹자가 한 적이 있습니까? 주돈이·주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께서는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으신 것입니까? 또 ‘흠어져 있는 ‘아’가 내 마음에 통회한다.’라 하셨고, 또 ‘닭이 울고 개가 짖고 소가 발 같고 말이 달리는 ‘아’는 내 마음에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른 바 내 마음에 통회하는 것은 어떤 사물입니까? 아! 아름다운 천명은 곧 이른 바 ‘아’입니다. 이미 ‘함께 천명을 받았다.’라 하시고서 또 ‘내 마음의 ‘아’가 아니다.’라고 하시니, 그렇다면 ‘아’와 ‘천명’은 두 가지 사물입니까? 말의 모순됨이 어찌 이와 같은 말입니까? 왕양명 공격에 급급하여 스스로 자사·맹자·주돈이·주희의 가르침과 어긋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신 것이니, 미처 상세히 살피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전해 받은 것이 있어서 그러신 것입니까? 저는 이와 관련하여 왕양명을 위해 입씨름할 겨를도 없이 거의 자사·맹자·주돈이·주희 등의 선생님들을 위해 붉은 깃발을 세우고자 합니다. 왕양명의 옳고 그름은 이 한 구절은

16) 조현명, 『歸鹿集』 권15, 「鄭進士季通墓誌銘」, “洪滄浪道長, 以詩雄於閩巷. 及其死, 鄭君來僑潤卿實繼之. 君即潤卿之弟, 而學於滄浪者也.”

물론 우선 명백한 변론을 하나로 귀결시킨 뒤에 천천히 왕양명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좌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 펴지 못합니다.¹⁷⁾

위의 글은 1742년 鄭羽良에게 보낸 편지이다. 정우량은 조현명과 함께 소론 완론에서 활동한 인물로, 훗날 우의정에까지 오른다. 조현명은 정우량이 말한 ‘사람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人物性異論]’는 견해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람과 사물의 본성은 다름이 없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시 노론계에서는 人物性同異 논쟁이 일었는데 湖論이 人物性異論을, 洛論이 人物性同論을 주장하고 있었다. 조현명과 정우량은 소론에서 활동하였지만 호락논쟁에 동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조현명이 동당의 주요 인물과 정치적 동지로서의 입장과는 별도로 노론 낙론계의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현명은 정우량에게 답한 이후 편지에서 이런 입장을 이미 30년 전부터 지니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데¹⁸⁾, 이런 사상이 김창협·김창흠 형제 및 그 제자들과의 교류 과정에서 연유한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조현명의 이런 사상이 서울·경기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던 노론 낙론계 인사들과 사상적, 정서

17) 조현명, 『歸鹿集』 권13, 「與鄭尙書羽良書」, “... 抑來教中, 人有人之理, 物有物之理, 截然不可亂云者, 乃所以攻破吾心卽物理之說也, 以愚所聞, 則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氣以成形, 理亦賦焉. 夫理也者, 一而已, 豈有人與物之異哉! 人物之所以分, 氣之不齊也, 非理之有二而然也. 是故, 子思曰, ‘天命之謂性’ 天命之性, 非人之所獨得也. 孟子曰, ‘萬物皆備於我’, 萬物之理, 皆我之有也. 周子曰, ‘陰陽一太極’, 人與物非有二太極也. 朱子曰, ‘人物各得其所賦之理, 以爲建順五常之德, 五常之德, 物亦有之也. 然則人之理物之理, 截然不可亂者, 子思·孟子有是說乎! 周子·朱子有是說乎! 未知左右何從得是說耶? 且曰, ‘散在之理, 統會於吾心.’; 又曰, ‘鳴吠耕走之理, 非吾心之所有’, 然則所謂統會於吾心者, 爲何物耶? 於穆之天命, 卽所謂理也. 旣曰, ‘同受天命’, 又曰, ‘非吾心之理也’, 然則理與天命爲二物耶? 何其言之矛盾如此也? 急於攻陽明, 而自不覺其悖於思·孟·周·朱之訓, 無乃考之未詳耶? 別有傳受而然耶? 愚者於此, 不暇爲陽明爭口氣, 殆欲爲思·孟·周·朱諸夫子建赤幟也. 陽明是非, 勿論此一節, 先爲明辯故一, 然後徐議陽明, 恐未晚也. 左右以爲如何. 不宣.”

18) 조현명, 『歸鹿集』 권13, 「答鄭尙書羽良書」, “卽物窮理之訓, 服膺已三十年, 豈敢有異說也.”

적 유대감을 갖도록 했을 것임은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위의 글은 조현명이 ‘왕양명’을 비판하는 데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현명이 정우량과 계속해서 주고받은 편지에는 왕양명에 대한 언급이 몇 차례 더 나오는데, 조현명은 왕양명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분명히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 오히려 조현명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왕양명의 설이 아니라고 변론하지만 정우량으로부터 왕양명에 가깝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그런데 조현명의 시 중에는 “『양명집』에 수록된 시의 운을 따와서 짓다[拈陽明集韻]”라는 제목의 작품이 그의 문집에 6수가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볼 때 조현명이 『양명집』을 읽었으며 양명학에 대해 일정한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현명이 양명학에 어느 정도나 경도되었는지, 또 깊이 있게 수용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조선 사회에서 이단시되던 왕양명을 자주 언급한 사실은 그 자체로 그의 관심 영역이 성리학 중에서 주자학과 이질적인 것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²⁰⁾

이상과 같이 조현명은 정치적으로 소론에 속하면서도 가계 및 사우관계에 있어서 노론과도 연계되어 있었다. 특히 김창협·김창흡 계열의 문사들과 깊이 교류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김창협·김창흡을 비롯한 그들의 문하생들이 중심이 되어 주장했던 ‘인물성동론’의 입장을 조현명도 견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노론계 주요 문사들과 교류한 점이나 서울·경기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노론 낙론계 인사들과의 사상적 동질성은

19) 조현명, 『歸鹿集』 권13, 「答鄭尙書羽良書」, “弟之不能無惑於陽明義外之說者, 正以補亡章爲可疑, 而台則舉似此欲弟之辯惑而去疑也, 其亦難矣. 然不必多爭口氣. 顧於台教中可疑者, 不容不更此奉質焉.”; 「答鄭尙書羽良書」, “所謂物理卽吾心, 吾心卽物理者, 此非陽明之說. 寔自孟子萬物皆備我, 周子太極圖中出來, 而推其本, 則中庸天命之性是也. 從氣質之性而言之, 則人與物固有不同, 而從天命之性言之, 則吾心與物理, 豈有二哉! 此其理無可疑也. 幸更商之也.”

20) 조현명은 양명학의 대가인 鄭齊斗와 교류한 바 있다. 정제두의 문집에는 조현명이 禮에 대해 질문하자 정제두가 답한 편지가 남아 있다. 『霞谷集』 3권, 「答趙穉晦書顯命」

조현명이 노소 간 대립을 중재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탕평’의 책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人性과 物性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인식²¹⁾이나 여향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 왕양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태도 등은 대립과 차별을 극복하고 공존하려는 의식과 일정 부분 관련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Ⅲ. ‘탕평’ 의식과 정치적 고뇌

조현명은 형 조문명과 함께 박세채의 破朋黨說을 수용하여 당시 정계에서의 심각한 대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탕평에 대한 그의 생각은 그가 정계에 진출하기 이전인 1716년(26세) 박세채의 유고를 읽고 兩非論을 채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²²⁾ 이후 탕평책은 그가 평생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하고 추진한 일이었다.²³⁾

이러한 그의 정치사상은 그의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관료 생활 초기에 지은 다음 시를 보자.

「復次前韻, 上致卿堂兄遠命 己亥[앞의 시에 다시 차운하여 당형인 조원명 치경계 올린다. 기해년],

21) 湖論의 한원진과 윤봉구가 洛論을 비판할 때의 주요 논리가 ‘無分’이었다. 조성산, 앞의 책, p.272.

22) 조현명, 「自著紀年」, 『歸鹿集』 권20, 「丙申. 二十六歲, 伯氏大諫公除臨陂縣令, 奉板輿, 往隨. 尼懷是非之闕, 舉世如狂, 或勸見兩家文書, 余曰, ‘見識不明, 恐先入爲主.’ 謝不見. 及得南溪朴先生遺稿讀之, 然後定兩非之論.”

23) 경종 즉위년인 1721년에는 박세채의 「파봉당설」을 수용하여 그의 형 조문명에게 「破朋黨疏」를 올리도록 권한 바 있다. 조현명, 「自著紀年」, 『歸鹿集』 권20, “景廟卽位無嗣, 冊一王子延礪君爲世弟. 叔氏拜文學, 余拜兼說書 … 是年春, 文忠公入玉堂, 勸上破朋黨疏. 後上語文忠曰, ‘予潛邸時, 讀卿經緯時疏, 心異之.’ 余兄弟所以結主知而救世禍者, 此爲張本也.”

紛紛鬪幾時
 朝入鬪坡暮夜郎
 心上先須無適莫
 眼中方可判陰陽
 分朋牛李終危國
 同德夔龍昔佐王
 安得挽回平蕩界
 秦階烟月賀明堂

분분한 만씨와 촉씨의 싸움은 언제 끝날까?
 아침에 한림원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쫓겨나네.
 먼저 마음속에 可·不可를 두지 말아야,
 비로소 눈앞에서 음양을 판단할 수 있으리.
 우·이가 봉당을 나누어 결국 나라가 위태로웠고,
 기·룡은 함께 협력하여 옛날에 순임금을 보좌했지.
 어찌하면 탕평의 경계를 회복시켜
 태평세상의 풍경을 명당에서 경축할 수 있을까?24)

이 시는 1719년에 지어 재종형 趙遠命(1675~1749)에게 준 작품이다. 조현명은 이 해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에 천거된 바 있는데, 제2구의 ‘난과(鬪坡: 한림원)’라는 용어를 통해 볼 때 그가 막 조정에 들어가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1716년 丙申處分이 있을 때 이미 노론과 소론의 싸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중앙 정계에 들어가 그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서 그는 탕평책 시행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조현명의 이러한 생각은 위의 시 전반에 걸쳐 잘 나타난다.

제1구는 『莊子』 「則陽」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자잘한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황을 비유하였다. 달팽이의 왼쪽 뿔에 있는 蠻氏와 오른쪽 뿔에 있는 觸氏가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싸워 결국 죽은 시체가 수만에 이르렀다고 하는 가설의 내용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조현명은 함련에서 선입견을 조심해야 함을 말한다. 미리 마음속으로 가부를 결정해놓지 말고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뒤에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노론과 소론이 상대 당론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경련에서 조현명은 봉당의 폐해와 협력 통치의 예를 역사를 통해 제시한다. 당나라 文宗 때 牛僧孺·李宗閔 당과 李吉甫·李德裕 부자의 당이 서로 정쟁을 심하게 벌여 결국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순임금의 두 신하인 夔와

24) 조현명, 『歸鹿集』 권1.

龍은 각각 樂官과 諫官으로서 서로 협력하여 군왕을 올바른 길로 잘 인도했다고 한다. 역사를 통해 정치가 잘 된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보여준 조현명은 미련에서 자신의 궁극적인 정치 이상을 피력한다. 『書經』 「洪範·皇極」에 나오는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의 ‘平’과 ‘蕩’자를 언급하며 정쟁에서 치우침 없는 경지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조현명은 정계 진출 초기에 이미 이러한 탕평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조현명은 1722년에 중형 조영명이, 1726년에 백형 조경명이, 1732년에 숙형 조문명이 차례로 사망하는 일을 겪는다. 그리고 1736년 그는 이조, 예조의 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반대파에 의해 등용되지 못하면서 춘천에 있는 선산과 형들의 묘소를 다녀온다.²⁵⁾ 그때 숙형 조문명의 묘소를 찾아가 곡하며 탕평책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한다. 다음 시를 보자.

「哭訣豐陵墓[풍릉부원군 묘소에 곡하며 영결하다],

世事蕭條皇極篇
殘生有淚灑荒烟
籥邊鹿走吾何卜
虎死羊蒙爾可憐
塚像依然瞻赤烏
人間已矣卜黃泉
哀哀骨肉幽明路
席嶺東西判百年

세상일에 황극편은 적막하고,
남은 사람은 황량한 연기에 눈물 뿌리네.
노루 옆에 사슴이 뛰노니 내 어찌 변별하리오?
죽은 범 가죽 입은 양이여, 너는 가련하도다.
무덤은 예전 그대로 붉은 신을 바라보는데,
형은 세상 떠나 황천에 복거하네.
슬프도다! 골육 간 생사의 길이
석과령 동서에서 갈렸도다.²⁶⁾

조문명은 당론의 뿌리가 인사권을 가진 부서의 취사에 달려 있음을

25) 그 방문의 계기와 방문 당시 시 작품의 경향에 대해서는 이경수의 앞의 논문에 자세하다.

26) 조현명, 『歸鹿集』 권2.

지적인 바 있다. 그는 이조, 병조의 인사에 대한 취사 선택권을 조정하는 문제가 당론과 봉당을 타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²⁷⁾ 따라서 조문명의 탕평론을 계승한 조현명에게 ‘이조판서’의 직책을 맡는 일은 ‘탕평’ 실현을 위해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파의 반대로 이조판서 임명이 무산된 상황에서 그는 형 조문명의 묘소를 방문한다.

조문명의 묘소에 도착한 조현명은 제1구에서 ‘탕평’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형이 추진했던 탕평책을 시행하려 해도 반대 세력에 의해 이조판서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니 남은 자의 슬픔은 더욱 커져만 간다. 함련에서 시인은 사슴, 노루, 범, 양의 동물을 시어로 활용하여 정계의 현실과 탕평 실현을 가로막는 무리들을 던지시 비판한다. 사슴 옆에 노루가 있고 노루 옆에 사슴이 있어 그 구분이 어렵듯이 정계의 현실은 누가 진정 우리 편인지를 알기 어렵고, 범 가죽을 쓴 양이 풀을 보면 좋아하고 승냥이를 보면 벌벌 떨듯이 본바탕은 속일 수 없는 데도 별 볼일 없는 무리들이 실속 없이 겉으로만 강한 체, 있는 체하고 있다.²⁸⁾

조현명은 이듬해인 1737년 이조판서에 임명된다. 이후 공조, 호조, 병조의 판서를 역임하였고, 1750년에는 영의정에까지 오른다. 그러나 1746년에 같은 당의 宋寅明과 탕평책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물러나는가 하면, 1749년에는 이조판서 추천 문제로 인해 金在魯와 대립하기도 한

27) 박광용, 『영조 시대를 만든 사람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p.18.

28) 漢나라 때 揚雄의 『法言』 「吾子」에 “양 바탕에 범 가죽을 쓰고서 풀을 보면 좋아하고 승냥이를 보면 벌벌 떠는데 범 가죽을 쓰고 있음을 잊은 것이다.[羊質虎皮, 見草而悅, 見豺而戰, 忘其皮之虎也.]”라는 말이 나온다. 한편 이 시의 함련과 같이 동물명의 글자를 사용하여 정치적 상황을 비유하고 비판하는 방식은 조현명 시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는 시의 모든 구에 동물명을 사용하는 演雅體 시도 여러 편 남긴다. 연아체는 잡체시의 일종으로서 戲作으로 분류되는데, 이처럼 조현명은 희작의 형식을 빌어 던지시 현실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다.²⁹⁾ 그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직상소를 올리며 양주 海村에서 대명하기를 반복한다. 이 때문인지 그의 시 속에는 ‘行藏’, ‘行止’, ‘進退’ 등의 용어가 유독 자주 나온다.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행장의 뜻을 묻는가? 오직 주역이 책상 앞에 있을 뿐이로다.[而誰問我行藏義, 獨有義經在案頭.]”³⁰⁾, “매화꽃 같은 군주의 은혜에 일흔의 보답도 하지 못하고, 사직의 안위는 온갖 근심뿐이로다. 출처의 의리를 헤아려 미리 정해두지 않았으니, 우직처럼 분주하거나 안회처럼 처사로 사노라.[君恩似梅蔑寸報, 社稷安危縈百慮. 行藏揆義無定筭, 禹稷奔走顏回處.]”³¹⁾, “군자의 행장은 사흘 밤 묵고 나서고, 조정의 의론은 한 번만 나와도 새롭구나.[君子行藏三宿出, 朝廷言議一番新.]”³²⁾ 등이 그것이다.

조현명은 이조판서의 지위에 오르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탕평책을 추진해나가지만, 탕평 추진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다음 시를 보자.

「病餘試筆呈東園處士 其二[병든 중에 붓을 놀려 동원처사께 올리다 제2수],

蝶舞忽忽燕語多
已看庭院有飛花
可憐病裏青春暮
暫憇林間白日斜
晚計不能成勇退
幽愁還欲放高歌
平生行止中央處
耳外紛紛奈我何

나비가 종종히 춤추고 제비는 시끄럽게 지저귀는데,
이미 정원에 꽃이 날리는 것을 보네.
가련하도다! 병든 중에 화장한 봄이 다하니.
잠시 숲에서 쉬는데 햇살이 기우네.
만년 생활 과감히 퇴직하지 못하고,
수심 안고서 다시 소리 높여 노래 부르네.
한평생 행동거지를 중앙에서 처했던만,
귓가에 분분한 비난 소리를 어이할꼬?³³⁾

29) 김성애, 「귀록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5』, 민족문화추진회, 2001, p.158.

30) 조현명, 『歸鹿集』 권2, 「拈韻」.

31) 조현명, 『歸鹿集』 권3, 「人日次東園寄示韻」.

32) 조현명, 『歸鹿集』 권4, 「夜與兒輩拈濂洛韻」.

33) 조현명, 『歸鹿集』 권3.

1740년에 지은 작품으로, 조현명은 이해 2월 호조판서로서 탕평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상소문을 올린다.³⁴⁾ 병든 가운데 어느덧 봄꽃이 날리며 이미 봄이 다하려 함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수련과 함련에 담았다. 세월은 흘러 점차 만년에 접어드는데 시인은 과감히 중앙정계를 은퇴하지 못한다. 그가 “어찌하면 승상 인장을 버리고서 냉랭한 난간에서 함께 거문고 소리를 논할까? [安得拋將丞相印, 冷冷軒上共論琴.]”³⁵⁾라고 했듯이 무거운 책임을 벗어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겠지만, 그는 한평생 진퇴를 거듭할 뿐 완전히 은거하는 삶을 선택한 적이 없다. 그것은 ‘탕평’ 실현에 대한 그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7구에서 그는 ‘탕평’ 추진을 위해 행동거지를 한쪽 편에 서지 않고 늘 중앙에 있어왔노라고 자부한다. 그것이 대립과 분쟁의 정치를 개혁하여 국가의 危亡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³⁶⁾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꺾가에는 그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는다. ‘꺾가에 들리는 비난을 어이할꼬?’라고 한 의문형의 말 속에는 탕평책 시행이 잘 되길 바라는 심정과 탕평책 추진을 그만둘 수 없는 마음, 그 때문에 용퇴하지 못하는 심정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듯하다.

「歲暮書懷[세월에 회포를 쓰다],

歲月不我與
今年奄已窮
行年五十餘
庶其居廣崇
胡爲錯路頭
口耳皆成空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니,
올해도 이미 훌쩍 다 지났네.
살아온 날은 50여년.
넓고 높은 곳에 사노라.
어찌하여 길 입구를 잘못 들어가
말하고 들은 것이 모두 부질없게 되었는가?

34)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 2월 3일조 기사 참조.

35) 조현명, 『歸鹿集』 권3, 「李兄治仲礪臣新第, 醉次. 卽靜觀先生故基也」.

36)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 2월 3일조 기사 참조.

悔悟良已晚
是非誰折衷
抱茲不決疑
嘆息窮廬中
古人如可作
請質尼丘翁

후회하고 뉘우친들 이미 늦었으니,
시비를 누가 절충할 수 있을까?
이런 해결 못할 의문을 품고서
궁벽한 집에서 탄식만할 뿐.
고인이 다시 살아난다면,
공자께 질정해보기 바라노라.³⁷⁾

1741년에 지은 이 작품에는 탕평 추진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에서 오는 답답함과 후회의 감정이 나타난다. 세월은 흘러 나이가 50이 넘었고 관직도 높이 올라갔건만 시인은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은 제8구의 시비 절충에 대한 언급을 통해 ‘탕평’ 문제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탕평’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여러 번 설명하고 강조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나타나질 않는다. 괜한 일을 했나 싶을 만큼 후회가 밀려온다. 앞으로 시비(是非)를 어떻게 절충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는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인은 마음이 답답하다. 그 때문에 공자의 제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스승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정해주시기를 바란다. 아마도 『論語』 「爲政」에 나오는 “군자는 두루 사랑하고 편당적이지 않으며, 소인은 편당적이며 두루 사랑하지 않는다.[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라는 구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고 싶었을지 모른다. 편당적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편당적이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만 남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문구는 이듬해인 1742년 영조가 성균관에 ‘蕩平碑’를 세우고 친필을 내려 새기게 한 내용이였다.

이상과 같이 조현명은 정계에서 탕평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식을 정계 진출 초기부터 분명히 지니고 있었고, 반대파로 인해 이조판서 임명이 무산되었을 때에는 춘천에 있는 형 묘소를 찾아가 탕평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으며, 탕평 추진 과정에서는 자신에 대한 비난

37) 조현명, 『歸鹿集』 권3.

여론을 감수해야 하는 고충과 탕평 실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었다.

IV. ‘탕평’ 의식의 확대 양상 - ‘균형’, ‘공존’ 의식과 그 양상

‘탕평’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결국 ‘공평’한 정치적 해결을 통해 서로 다른 봉당이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즉, ‘탕평’은 ‘공평’, ‘공존’과 상통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현명이 정치적 분쟁 외의 상황에서도 ‘공평’, ‘평등’, ‘공존’ 등의 의식을 여러 시 작품 속에 드러내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균형’, ‘공존’의 세계관은 ‘당파’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일상, 사물, 사람, 사상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장에서는 그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시는 벗과의 교유 과정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해야 함을 주장한 작품이다.

「叔謙每稱余眉宇有山林氣，弟常謂靈城有訓將髯，皆記實也。爭端無已時，無寧與講皇極篇可乎。[숙겸이 매번 나의 눈썹에 산림의 기운이 있다고 칭송하였고, 아우는 항상 영성군에게 훈련대장의 수염이 있다고 하였는데 모두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싸움의 단서가 끝나지 않는 이때에 차라리 황극편을 함께 강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光價雙南各競高
甚於三國鬪孫曹
同聲本欲填箎和
相厄胡爲水火鑿
不必評人分玉石
莫須觀物較毛毫

쌍남금의 가치가 각각 더 높다고 다투니,
삼국시대 손권과 조조의 싸움보다 심하네.
같은 소리 낼 때는 훈지처럼 조화롭더니,
서로 해칠 때는 어찌 물-불처럼 다투는가?
남을 폄평할 때 옥석을 구분할 필요 없고,
사물을 볼 때도 털 굵기를 비교하지 말라.

從今與約爲平蕩
我自元龍爾亦豪

지금 탕평을 하기로 함께 약속했으니,
나는 절로 원룡이요, 그대 또한 호걸이로다.³⁸⁾

이 시는 1738년에 朴文秀(1691~1756), 李日躋(1683~1757)와 서로 장난스런 논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지은 작품이다. 박문수가 먼저 700명의 군위병을 거느리는 자신을 장부로 자랑하면서 종일토록 힘들여 시를 짓는 이일제를 조롱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³⁹⁾ 박문수는 당시 병조판서로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현명이 이일제를 변호하자 이일제가 다시 조현명 역시 장수의 부신[將符]을 가지고서 삼국시대 魏나라 陳登의 평상을 독점하려 한다고 조롱하였다.⁴⁰⁾ 위의 시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 뒤에 지어진 것이다.

이 시는 제목에서부터 皇極篇이란 용어가 나오고, 또 제7구에서 ‘平蕩’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수련에서는 두 사람의 장난스런 싸움이 삼국시대 손권과 조조의 싸움보다 심하다고 하여 그 격렬함을 강조하였다. 함련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서로를 해치려 해서는 안됨을 말하였다. 경련은 남에 대한 품평과 사물에 대한 비교 과정에서 우열을 논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미련에서는 분쟁과 대립을 소탕하기로 약속했으니 서로의 豪氣를 인정하자고 말한다. 元龍은 魏나라 陳登의 자로, 國士 許汜가 찾아왔을 때 호기롭게 자신은 큰 침상에 눕고 허사를 그 아래 침상에 눕게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사가 劉備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유비는 발을 구하고 집이나 묻는 허사에게 그 정도면 진동이 대접을 잘해준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소인 대접을 했다면 본인은 백척루에 눕고 허사를 땅바닥에 눕도록 했을 것이라고 대답한 고사가 전한다.⁴¹⁾

38) 조현명, 『歸鹿集』 권3.

39) 조현명, 『歸鹿集』 권3, 「靈城之書, 以方隸七百禁旅, 自誇以丈夫, 以終日苦吟, 嘲吾輩李君敬日躋, 壘前韻以解之」

40) 조현명, 『歸鹿集』 권3, 「君敬又以前韻, 嘲余之亦帶將符, 而欲自專元龍床」

41) 『三國志』 권7, 「魏書陳登傳」 참조.

이 시는 사소한 장난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작품이다. 박문수는 조현명과 같은 소론 계열이긴 하나 峻論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당평책 시행에는 동일한 노선을 취했으며 더욱이 서로 同甲으로서 重甲稷의 구성원이기도 했다.⁴²⁾ 조현명은 벗과의 사소한 말다툼에서도 서로에 대한 우열 논쟁을 버리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정치적 ‘당평’ 실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벗과의 평소 교류에까지 관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시는 좌우 균형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불교의 ‘平等’ 사상에 대한 호감을 보여준다.

「僑居中載浩鄭來僑至拈韻 其十五[우거하던 중 조재호와 정내교가 찾아왔기에 운을 내어 짓다. 제15수],

河漢迢迢斗轉西	멀고먼 은하수에 북두성은 서쪽으로 기울고,
悲歌夜憶故山藜	슬픈 노래 떠도는 밤에 고산의 명아주가 생각나네.
風期早託猶魚水	일찍이 물 만난 물고기 같은 友誼에 기대었다가,
世態翻驚鬪獸泥	돌연 진탕 속 짐승처럼 싸우는 세대에 놀라네.
正好行舟均左右	선박이 가려면 좌우 균형이 잘 맞아야 하니,
詎云皇路有高低	어찌 황로에 높고 낮음이 있음을 말하는가?
佛家平等吾心事	불가에서 말하는 平等이 내 마음이니,
將欲尋僧笑虎溪	장차 스님을 찾아가 호계에서 크게 웃으리. ⁴³⁾

1742년 숙형 조문명의 아들 趙載浩(1702~1762)와 여향인 鄭來僑가 찾아왔을 때 지은 시이다. 새벽녘까지 잠들지 못한 시인은 정치권의 분쟁을 떠올린다. 물과 물고기가 서로 화합을 이루듯 우정 있는 벗들이 있었지만, 봉당 간 대립이 시작되면 마치 진흙탕 속에서 짐승들이 싸우는 모

42) ‘중갑계’는 조현명과 외종인 沈師周, 박문수 등 모두 1691년에 태어난 지인들이 서로 맺은 稷이다. 계를 맺게 된 경위는 「重甲稷序」(『歸鹿集』 권18)에 자세하다.

43) 조현명, 『歸鹿集』 권3.

습으로 돌변한다. 시인은 이러한 원인을 ‘균형’이 맞지 않은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배를 운행하려면 좌우 균형이 잘 맞아야 하듯이 벼슬길의 인제도 봉당 간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의 균형을 잘 맞춰서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불교의 평등 사상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진다. 일체의 만물과 현상은 高下와 深淺의 차별이 없다는 불교 이론과 자신의 생각이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님을 찾아가 서로 간의 생각을 논의하고 싶은 심정을 쫓나라 때 慧遠과 陶淵明의 고사를 통해 드러낸다. 혜원은 東林寺에 있을 때 손님을 전송하며 虎溪를 건넌 적이 없었지만 도연명과 道士 陸修靜이 방문했을 때에는 서로 뜻이 잘 맞아 그들을 전송하며 자신도 모르게 호계를 건넜고 그 때문에 세 사람이 서로 크게 웃었다고 한다.⁴⁴⁾ 시인은 이 고사를 사용함으로써 본인이 고승을 만나면 서로 ‘평등’ 관련 견해가 잘 맞을 것임을 확신한다.

조현명은 영물시를 짓는 과정에서도 ‘공존’하고 있는 두 사물을 칭송할 때가 있다. 다음 시를 보자.

「黃白鶴翎同盆，盛開雪中，拈韻[황학령과 백학령이 한 화분에 눈보라를 건디고 활짝 피었기에 운을 내어 짓다].」

戶外時聞淅瀝風
客來盆菊兩三叢
已能抵敵嚴霜下
不分支吾積雪中
殿却蘭春爭暗馥
先於梅臘擅奇功
獨憐黃白元殊種
相與扶持到老同

문밖에 때때로 거센 바람 소리 들리는데,
객이 두 세 떨기 핀 국화 화분을 들고 왔네.
이미 된서리를 맞아 싸우고서
적설 속에서도 견딜 줄은 생각지 못했네.
봄 난초보다 늦게 나와 짙은 향기를 다투고,
겨울 매화보다 먼저 피어 기이한 공을 드러내네.
황색 백색은 원래 종이 다른데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늙어감이 유독 사랑스럽네.⁴⁵⁾

44) 陳舜俞, 『廬山記』 권2, 「叙山北篇第二」 참조.

45) 조현명, 『歸鹿集』 권3.

이 시는 1742년 두 가지 색깔의 국화꽃이 화분에 함께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며 지은 것이다. ‘鶴翎’은 국화를 의미하며, 황색과 백색을 각각 ‘황학령’, ‘백학령’으로 구분하여 말한다. 조현명은 늦가을, 초겨울 즈음 화분 속에 키우는 국화꽃을 접했음을 수련에서 말하고 있다. 이어 함련과 경련에서 국화꽃을 예찬하였다. 우선 보통의 국화꽃이 모두 질 시점에 되서리와 눈보라를 견디고 핀 것이 대견스럽고, 또 이 국화꽃의 존재를 고결함의 상징인 난초와 매화 사이에 둠으로써 역시 그 고결함을 칭송하였다. 이러한 칭송은 미련에서 ‘獨’이란 글자의 사용을 통해 극대화한다. 시련을 견디고 고결함을 보여주는 것도 칭송할 만한 일이지만, 황색과 백색 국화가 각기 품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시들 때까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시인에게는 유독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이 시에서 시인이 ‘탕평’이나 ‘황극’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언급 역시 하고 있지 않으나, 국화꽃에 대한 칭송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분쟁 없이 균등하게 상생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했던 조현명의 평소 생각과 상통한다.

조현명은 文人과 武人の 활약에 대해서도 균형적 시각을 지니고서 둘 사이에 비교 우위를 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시를 보자.

「曹兵使允成輓[평안병사 조윤성을 애도하다].」

君子事君非一途
以文以武誰牛羊
文士白望恣高論
金馬玉堂多翱翔
不能賦詩以退賊
此輩拘拘何足臧
無寧投棄三寸管
手挽烏號五石強

군자가 임금 섬기는 길은 하나가 아니니,
文과 武로 섬김에 어느 것이 소이고 양인가?
문사들은 헛된 명성 갖고 멋대로 고준담론 펼치며,
한림원을 서성이는 자가 많도다.
시 짓는 재주로는 적군을 물리칠 수 없으니,
이들의 얽매인 모습 어찌 좋을 것 있겠는가?
차라리 세 치 붓 따위를 던져 버려
손으로 닷섬의 오호궁을 당김이 낫지 않겠는가?

旗鼓金壇擁貔貅
指揮號令風雲揚
生當提戈入虎穴
死且裹革橫沙場
金遼東伯李忠武
谿澤諸公孰短長
…(중략)…

往者吾自瀋陽歸
逢君擁旄出西方
太白城邊夜正闌
綢繆桑土多商量
佇見戎垣變精彩
那知大樹纏風霜
國家昇平百餘年
武事疎虞置相忘
北虜馬肥南劔利
此時又失干城良
天意蒼茫欲如何
白頭題輓淚盈裳

깃발과 북 아래 금단에서 용사들에 둘러싸여,
지휘하고 호령하여 풍운을 드날리네.
살아서는 창 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죽어서는 말가죽에 쌓여 모래밭을 횡단하지.
요동백 김응하와 충무공 이순신을
계곡, 택당 등에 비하면 누가 더 훌륭한가?

…(중략)…

지난 해 내가 심양에서 돌아올 때
그대를 만나 깃발 들고 서쪽 변방에 나갔지.
태백성 가에 밤이 한창일 때
유비무환의 계책을 많이 생각해두었네.
장수의 군대가 정예병으로 바뀌길 기다렸는데,
어찌 큰 나무에 풍상이 엷힐 줄 알았겠는가?
국가가 태평한지 백여 년,
武事를 소홀히 하여 나몰라라 방치했네.
북방 오랑캐 말은 살찌고 남방 같은 예리한데,
이때 또 간성의 훌륭한 장수를 잃었도다.
하늘의 뜻은 아득하니 어찌려는 것인가?
백발로 만시 짓노라니 눈물이 옷깃에 가득하네.⁴⁶⁾

조현명은 1743년 7월에 瀋陽問安使로서 심양에 다녀온 바 있다. 그때 평안병사 曹允成을 만났으며 이듬해인 1744년에는 북방 지역의 방어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바 있다.⁴⁷⁾ 이 작품은 1745년 曹允成이 죽었을 때 지은 애도시이다. 후반부에서 망자와 함께 북방에서 만나 유비무환의 계책을 논했던 인연에 대해 말하였고, 武事를 소홀히 하는 당시 현실을 비판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 우수한 무인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 시는 전반부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현명이 군왕

46) 조현명, 『歸鹿集』 권4.

47) 자세한 내용은 『歸鹿集』 권13, 「答曹兵使允成書甲子」 참조.

을 섬기는 길로써 문무(文武)의 두 가지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현명은 멋대로 고준담론이나 펼치며 시를 지을 뿐 전란이 일어나면 적군을 패퇴시키지 못하는 문인들을 좋게 볼 것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무인들의 용맹함과 生死에 연연해하지 않는 모습을 칭송한다. 그는 무인 중에서 훌륭한 인물로 요동백 金應河와 충무공 李舜臣을 손꼽고 있으며, 문인 중에서 우수한 인물로는 雞谷 張維와 澤堂 李植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들 무인과 문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훌륭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에는 제2구에서 ‘각각 文과 武로써 섬김에 어느 것이 소이고 양인가?’라고 했듯이 그 우열을 논할 수 없다는 조현명의 견해가 내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인 중심의 조선사회에서 독특한 견해로 볼 수 있는데, 평소 ‘균형’과 ‘평등’, ‘공존’을 중시했던 조현명의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현명은 다음과 같은 지역의 송사 문제에서도 공평함을 주장하였다.

『過李文甫，次板上。時有溪山甲乙之訟[이문보를 방문하여 판상의 시에 차운하다. 당시 시내와 산에 대한 갑을의 송사가 있었다.]』

一壑東西各一村	골짜기 동서로 각각 한 마을을 이룬 곳에,
藍輿偶過礪邊門	남여가 우연히 골짜기 문을 지나네.
綠陽明月平分是	푸른 햇살과 밝은 달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으니,
莫把溪山甲乙論	시내와 산을 갑을로 논하지 말라. ⁴⁸⁾

自注에 나오듯이, 당시 시내와 산에 대한 갑을의 송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송사의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조현명은 우연히 골짜기를 중심으로 두 마을로 갈라진 곳을 지나며 송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다. 시내와 산의 소유권을 갑과 을로 쟁론하지 말고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제3구에서 ‘綠陽’과 ‘明月’을 끌어

48) 조현명, 『歸鹿集』 권3.

들었다. 해와 달은 모든 지역과 사람들을 균등하게 비취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특정인과 특정 지역이 햇빛과 달빛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역시 자연물인 시내와 산은 그 소유권을 누군가 더 가져가려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⁹⁾

이상과 같이 조현명은 그의 일상뿐 아니라 사물, 사상, 사람 등을 대하는 과정에서도 ‘균형’, ‘평등’, ‘공존’ 등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었다. 탕평책과 균역법을 추진했던 그의 ‘平’ 사상은 정치적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고는 조현명의 탕평 의식 및 추진 배경을 알아보고 그의 시에 나타난 ‘탕평’ 관련 의식과 그 양상을 살핀 것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현명의 집안은 노소 분기 당시 그의季祖 조상우가 소론에 가담한 이후 대부분 소론에 속하면서도 노론계와 연혼 및 사우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조현명은 김창협·김창흡 계열의 노론 문사들과 깊이 교류하였고 또 노론 낙론계에서 주장했던 ‘인물성동론’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노론계 인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노소 간 대립을 극복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탕평’의 적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49) 이처럼 자연물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나 공평하게 나눠진 것을 예찬하는 내용은 이 시 외에도 다음과 같이 여러 작품에 보인다. 『歸鹿集』 권1, 「敬次鶴巖」, “溪山物色平均占, 丘壑經綸次第成”; 『歸鹿集』 권1, 「寄題宋君集成明廣津松石軒」, “吾兄皎皎出塵氛, 於此平分一水濱”; 『歸鹿集』 권4, 「次南相國石上酌示士精」, “丘壑平分遲暮計, 吾家亦在道峰東”; 『歸鹿集』 권4, 「權信卿見一亭, 次保叔酌 二疊」, “野花橫掛千畦綠, 岳色平分萬丈青”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가 인성과 물성을 차별하지 않은 것이나 홍세태, 정내교 등 여향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 것, 왕양명에 대한 관심 등도 대립과 차별을 극복하고 공존하려는 그의 의식과 일정 부분 관련성을 지닌다.

‘탕평’은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균형과 공평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대립과 분쟁을 극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가 공존하고 상생함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런 면모는 조현명의 시 속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정치적 측면과 정치외적 측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조현명은 봉당 간 분쟁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정계 진출 초기부터 ‘탕평’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지녔고, 이조판서 임명이 무산되었을 때에는 탕평을 추진하지 못하는 처지와 고충을 드러내었으며, 탕평 추진 과정에서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탕평 추진을 위해 용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조현명은 정치적 분쟁 외에 사람, 사물, 사상 등을 대하는 여러 상황에서도 ‘공평’, ‘평등’, ‘공존’ 등의 의식을 드러내었다. 그는 벼과의 사소한 말다툼에서도 우열 논쟁을 버리고 서로를 인정하자고 말하는가 하면, 좌우 균형의 문제를 언급하며 불교의 ‘평등’ 사상에 호감을 보이기도 한다. 또 백색과 황색의 각 국화꽃이 서로 종이 다른데도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예찬하고, 문인과 무인의 활약에도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서 둘 사이의 비교 우위를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갑을을 따지는 지역의 송사에 대해 자연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그의 ‘균형’, ‘공존’ 의식이 정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현명의 균형적 시각은 차별과 대립, 분쟁을 거부하고 화합과 상생을 추구하고자 했던 18세기 전반 소론계 지식인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參考 文獻>

- 조현명, 『歸鹿集』(한국문집총간 212집)
- 정제두, 『霞谷集』(한국문집총간 160집)
- 이규상 지음,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18세기 조선 인물지 并世才彥錄』, 창작과비평사, 1997.
- 『영조실록』(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김대식, 「歸鹿 趙顯命의 訓長制 시행과 그 변용」, 『한국교육사학』 29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7.
- 김성애, 「귀록집 해제」, 『한국문집총간 해제5』, 민족문화추진회, 2001.
- 김형자, 「朝鮮後期 趙顯命의 政治·經濟思想」,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광용, 『영조 시대를 만든 사람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이경수, 「조현명 한시의 춘천 표현」, 『인문과학연구』 52, 인문과학연구소, 2017.
- 이근호, 「趙顯命의 現實認識과 國政運營論」, 『한국사상사학』 32, 한국사상사학회, 2009.
- 정만조, 「귀록 조현명 연구 - 그의 탕평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8,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 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7.
- 최유진, 「삼연 김창흡의 철학적 시세계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

Abstract

*A Study on Jo Hyeon-Myeong's "Tangpyung" Consciousness
in His Poems / Lee Nam-myon**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Tangpyung awareness and its propulsion background of Jo Hyeon-myeong(1691~1752), a politician and literary man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and the patterns of his "Tangpyung"-related awareness being embodied in his poems. Jo was one of the core figures that pushed the Tangpyung policy forward, going up the career ladder from Ijo Panseo to Yeonguijeong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His family joined the Soron at the time of Noron-Soron divergence, but they formed relations with families in the Noron line based on marriage and friendship. He had profound exchanges with literary men in the Kim Chang-hyeop and Kim Chang-heup group of the Noron line and maintained a position of "the same nature between human beings and things" argued by the Noron Nakron line. These aspects of his helped him form ideological fellowship with Noron figures(especially the literary men of the Nakron line) and became a part of the backgrounds behind which he was able to perform as the right man for the "Tangpyung" policy to overcome confrontations and strike balance between Noron and Soron. In addition, he did not discriminate the nature of things against the human nature, engaged in unreserved communication with people from the middle class including Hong Se-tae and Jeong Nae-gyo, and took interest in Wang Yang-ming. These had something to do with his consciousness of overcoming confrontation and discrimination and promoting coexistence.

His "Tangpyung"-related poems are divided into political and non-political aspects. In the political aspects, he kept the clear consciousness of "Tangpyung" in the early days of his political career, spoke about his position and difficulty of not being able to push Tangpyung forward after his appointment as Ijo Panseo fell, and refused to retire to push Tangpyung forward despite the criticisms in the process. In the non-political aspects, he had the consciousness of "fairness," "equality" and "coexistence" in various situations.

* Research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lnm96@hanmail.net

ons of dealing with people, things, and ideas. He proposed to give up the superiority-inferiority dispute and recognize each other in trivial quarrels with his friends and exhibited goodwill to the "equality" idea of Buddhism. Furthermore, he admired the coexistence of different types of chrysanthemum, insisted that there should be no superiority between literary and military men, and suggested in local suits that fair division would be right.

His consciousness of "balance" and "coexistence" was extended to broad areas beyond the political arena and exposes an aspect of the Soron intellectuals in the former half of the 18th century who rejected discrimination, confrontation, and dispute and sought after harmony and coexistence.

【Key words】 Jo Hyeon-myeong, Tangpyung, balance, coexistence, equality, Noron, Noron line, Noron-Soron, Soron

투고일 : 11월 16일, 심사완료일 : 11월 30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